



트라우마
인지 사역의 힘

우리는 우리 교회와 사역의 장소가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안전감을 느끼고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를 인지한다는 것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잘 채울 수 있는 정책, 실천, 절차를 지원하는 틀을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전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는 바로 학대하는 남편을 떠나 가정폭력보호소에 머물던 어느 여성의 말입니다. 그는 접근금지 명령, 보호소의 방탄 유리, 비상 경보, 감시 카메라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 장치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체적으로 안전했지만 그녀의 몸은 그가 안전감을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의 영향력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4R*을 통해서 **트라우마 인지의 힘**을 발휘해 봅시다.

1. 트라우마의 빈도와 파급력 **깨닫기**
2. 트라우마와 관련된 징후 및 증상 **인식하기**
3. 정책, 실천 및 절차에 지식을 융합하여 **대응하기**
4. 트라우마를 입은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2차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2차 가해 상황에 저항하기**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2

*타라 보어 박사는 “트라우마를 인지하는 교회 (tinyurl.com/mp56prvv)”에서 교회들에게 약물오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 관리국 (SAMHSA)이 제안한 트라우마 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4R을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예술작품 “**신비로운 사과**” 로레인 로이 작가 (2022)



Christian
Reformed
Church

PHONE

616-241-1691 (US)
800-730-3490 (Can)

EMAIL

safechurch@crcna.org

WEBSITE

www.crcna.org/SafeChurch

